

조습전 리뷰

지금까지 조습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맹신된 이미지를 찾아 저속한 개그로 재현하고, 인간관계 (사랑, 믿음, 갈등, 배신) 에서 파생된 폭력성을 흥미롭게 묘사하는가 하면, 직접 작업에 출연하면서 잔혹하게 당하는 피해자를 연기하였는데, 이번에 그는 서양의 성화, 명화 중 신체에 학대를 가하는 그림을 주로 이용함으로써 명랑하지만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인간의 미시적인 욕망과 그러한 욕망을 통제 - 억제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폭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림>을 차용한 두 개의 작업이다. <Who wants to live forever 01>은 1980년대 한국사회의 운동권 문화를 조명한 것으로 당시 지식인, 대학생, 공장노동자, 직장인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별거벗은 조습을 받치고 있으며, 맨 위의 사람들은 형광등을 갈아 끼워 불을 밝히려 하고 있다. <Who wants to live forever 13>은 한국의 군사문화를 다룬 것으로 6.25 전쟁, 4.19 혁명, 5.16 군사정변, 월남전과 관련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화면 상단에는 민방위 대원이 마치 등화관제 (燈火管制)를 시행하듯 형광등을 빼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계층들이 각각 굳게 신봉하며 쌓아 올렸던 믿음, 즉 그들의 진리란 무엇이란 말인가?

시체를 해부하는 <Who wants to live forever 02>는 기독교를 믿게 하기 위해 껍질과 내장을 바꾸는 성화를 모티브로 한다. 이 사진에서 군인이 사람을 해부 하지만, 그 행위의 배후에는 과학이 존재한다. 최근 황우석 사건만 보더라도, 자본, 권력, 과학이 결합하여 도덕적 - 윤리적 문제를 뒤로하고 우리사회를 지배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과학이라는 미명으로 타인의 몸을 해부하거나, 나아가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한다.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공포를 깊이 간직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전시 명은 "Who wants to live forever" 이다. 종교와 불멸을 다룬 영화 <Highlander> 에서 퀸 (queen)의 부른 노래 제목과 같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사회마다 권력과 통념으로 표출 되었고, 그것은 한국에서 군사문화, 반공, 가부장, 순결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대변화에 따라 이러한 통념은 마땅히 저승으로 가야 하지만, 아직도 이승을 떠돌면서 우리들을 괴롭히기도 한다. 우리가 이 유령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가? 진리, 종교, 과학으로 신체에 각인된 공포는 쉽게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류한승 (미술비평)

월간미술 2008 9 월호 178p